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섣달그믐날(음력 12월 30일) 밤에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 풍속이 있습니다. '불 밝히기' 또는 '해 지킴'이라고 하는 '수세'(守歲)가 그것인데요.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하여 가족끼리 모두 모여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 모두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해 복(福)을 비는 풍속으로 묵은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설계를 하라는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글 전수영 기자

01

입동 추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인 11월 8일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서리 내린 차창 너머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01

첫눈

충남도청 주변에 눈발이 날린 11월 19일 어린이들이 눈을 맞으며 산책하고 있다.

양영석 기자

02

민속촌의 월동 준비

11월 17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관계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

홍기원 기자

03

스키장 개장

강원지역 주요 스키장이 올해 첫 개장한 11월 15일 강원 평창군 휘닉스평창스노우파크에서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슬로프를 질주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01

가을 끝자락

11월 11일 경기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고양이가 붉은 단풍 아래를 거닐고 있다.

임병식 기자

02

가을 산책

11월 11일 경기 고양시 한 주택가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다.

김병만 기자

03

낙엽과 함께 저무는 가을

11월 15일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붉게 물든 단풍과 떨어진 낙엽들이 늦가을 정취를 풍기고 있다.

홍기원 기자

04

뜨개옷 입은 가로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11월 1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중앙공원 가로수가 뜨개옷을 입고 있다.

홍기원 기자

01

함상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11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 정박한 독도함에서 '2019년 함상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김동민 기자

02

육군 특전사 고공 강하

11월 10일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 일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5일을 기념해 열린 환영 행사에서 육군 특전사 특수임무단이 고공 강하를 하고 있다. 강하 요원 12명은 태극기, 아세안 10개국 국기, 아세안 기를 부착한 채 헬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떠 있는 독도함에 착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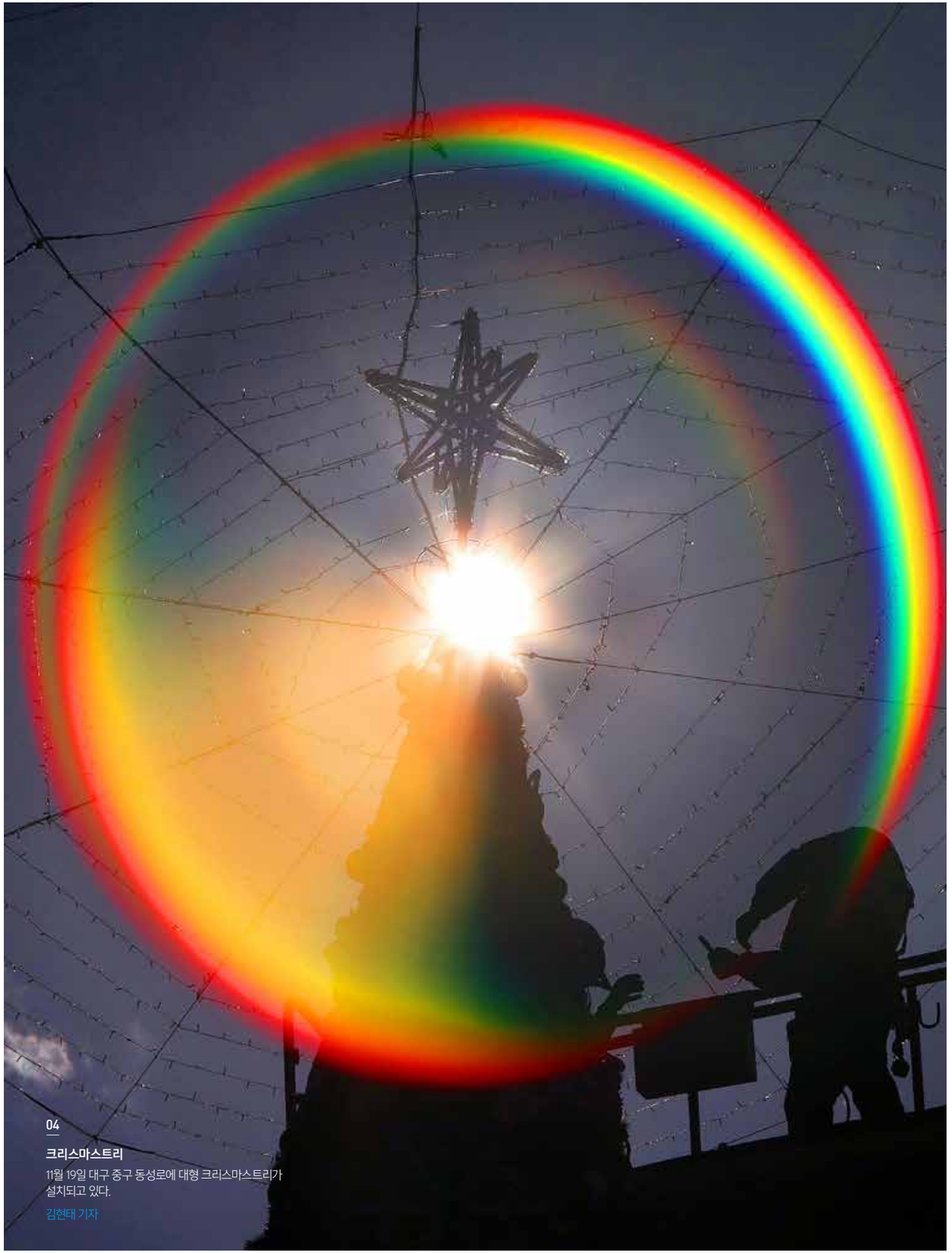
조정호 기자

03

빛으로 파도치는 물결

11월 1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6회 해운대 빛 축제가 열렸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위에 빛으로 파도치는 물결을 표현한 '은하수 빛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해운대 빛 축제는 내년 1월 27일까지 열린다.

손형주 기자



04

크리스마스트리

11월 1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고 있다.

김현태 기자